

언어 살펴보기

1. 단위에 대한 이해

음운 - 형태소 - 단어 - 구 - 절 - 문장. 뒤의 개념이 앞의 개념과 동일할 수 있다.

예시)

밥 먹었어?

어.(대답) - 단일 음운, 단일 형태소, 단일 단어.

(구와 절, 문장은 일반적으로 2개 단어 이상이어야 하기에 제외)

- 음운

정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단위의 '소리'

정리: 주로 자·모음, 가끔 장단

- 형태소

정의: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팁: 조사와 어근, 접사, 어간, 어미는 형태소의 개수

- 단어

정의: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말(예외- 조사)

정리: 단어의 개수 = 어절 + (조사의 개수)

- 구&절

정의: 2개 단어 이상 = 구

주술 관계를 가진 구 = 절

정리: 후술.

- 문장

정의: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언어 형식

정리: 후술.

2. 음운 개수 세기

이중 모음은 차치(설명이 없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다.)하자.

쌍자음은 단일 음운이고, 겹받침은 2개의 음운이다.

(왜냐고 물으면, 쌍자음의 음가는 하나다. 글자가 아닌 '소리'라는 점을 알아 두자.)

초성(한 음절 내에서, 모음 앞)의 'ㅇ'은 음운이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문장의 음운 개수를 세 보자. 변동 파트에서 주로 출제되나, 가능성을 열어 두자.

소주 한 잔을 꺾어 마시고, 닭다리를 뜯었다.

‘ㅅ ㄴ ㅈ ㅊ ㅎ | ㄴ ㅈ | ㄴ - ㄹ ㅈ | ㅈ ㅈ ㅁ | ㅅ | ㄱ ㄴ ㄷ | ㄱ ㅌ | ㄹ |
ㄹ - ㄹ ㅌ - ㄷ | ㅌ |’

의 39개이다. ‘소리’ 기준이기에 **음운 변동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음절의 끝소리 규칙

대상(그냥 외웁시다): ㄱㄴㄷㄹㅁㅂㅅ(가느다란물방울 등 편한 방식으로 외우자) 이외의 자음
조건: 후행하는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가 아닐 때(어말일 경우 역시 해당)

예시 1)

옷과 - [올과]

대상: 자음 ‘ㅅ’ - 해당.

조건: 후행 형태소=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과’ - 해당.

결론: ‘ㅅ’ → ‘ㄷ’으로 교체.

예시 2)

옷이 - [오시]

대상: 자음 ‘ㅅ’ - 해당.

조건: 후행 형태소=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 - 해당하지 않음.

결론: 적용되지 않고 연음.

4. 된소리되기

대상: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 - 초성이 선행하는 종성에 의해 교체.

조건(크게 중요하진 않음)

대상	예시
종성 ‘ㄱ, ㄷ, ㅂ’ 뒤	국밥[국꺾], 밥도[밥뚝]
용언 어간 말 ‘ㄴ, ㅁ’ 뒤	감고[감꼬], ※신고[신꼬]
한자어 ‘ㄹ’ 뒤	갈등[갈뚱], 절정[절짱]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갈 길[갈꺾], 만날 사람[만날쌔람]

※ 용언의 어간에 붙는 경우이기에 경음화가 일어난다.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함’의 의미를 갖는 명사 ‘신고[신고]’는 표기가 동일하나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다.

tmi) 그냥 보고 넘어가자.

1) hug: [안따].

2) know him: 나는 그를 안다[안다]. → ?

1) 의 ‘안다[안따]’는 용언의 어간 ‘안-’의 끝소리가 ‘ㄴ’이기에 된소리되기가 이루어지나,

2) 의 ‘안다[안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ㄴ-’이 끝소리기 때문에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경음화

중요한 점부터 말하겠다.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된소리되기는 교체이고, 사이시옷은 첨가다. 사잇소리는 ‘소리’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사이시옷은 ‘표기’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사잇소리 경음화의 조건(외우면 편하긴 하다)

1) 합성 명사

2) 선행 음절의 끝소리가 울림소리(ㄴ, ㄹ, ㅇ, ㅁ & 모음)

사잇소리 현상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 또는 상황에 맞추어 판단하도록 하자. 또한, 단순 경음화와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경음화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사잇소리 현상 중 ‘ㄴ&ㄴ’ 첨가, 사이시옷 현상은 후술하겠다.

6. 비음화와 유음화

앞→뒤(앞 음운 때문에 뒷 음운이 바뀜): 순행 동화

뒤→앞(뒷 음운 때문에 앞 음운이 바뀜): 역행 동화

비음화: 비음이 아닌 자음(일반적으로 ‘ㄱ, ㄷ, ㅂ’) 종성이 후행하는 초성 ‘ㄴ, ㅁ’을 만나 ‘ㅇ, ㄴ, ㅁ’이 되는 현상. 항상 역행 동화

tmi) 비음 ‘ㅇ’이 없는 이유? 초성의 ‘ㅇ’은 음가가 없기 때문.

유음화: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ㄹ’이 되는 현상. 순행과 역행 동화 모두 가능.

※ ‘ㄹ’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이 되는 경우 또한 있는데, 비음화에 해당함.

7. 구개음화

실질 형태소가 후행하면 일어나지 않음.

8. 탈락

종류만 익혀 두자. 딱 봐도 안다.

자음군(ㄹ) 등의 겹자음 종성) 단순화, ‘ㄹ’ 탈락, ‘ㅎ’ 탈락, ‘ㄴ’ 탈락, ‘ㅈ/ㅉ’ 탈락 등이 있다.

9. 첨가

간단히만 알아 두자.

- ‘ㄴ’ 첨가: 복합어에서, 자음 종성 형태소 + ‘ㅣ’ 또는 반모음 ‘ㅣ [j]’이 만났을 때 ‘ㄴ’이 첨가되는 현상.

예시)

솜이불[솜니불] - 자음 종성 ‘ㅁ’ + 모음 ‘ㅣ’.

식용유[시공뉴] - 자음 종성 ‘ㅇ’ + 모음 ‘ㅠ’

이중 모음 ‘ㅠ’는 반모음 ‘ㅣ [j]’ + ‘ㅍ’이기에 해당함.

tmi) 식용유[시공뉴]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식+용은 [시공]이고 용+유는 [용뉴]인 이유: 식용유는 (어디까지나 상식적으로) ‘식용+유’인 합성어인데, 어근은 형태소에 해당하기에 형태소끼리 만나는 부분인 용+유가 [용뉴]로 발음되는 것.

- 반모음 첨가: 생략.

- 사잇소리 현상에 의한 첨가

- ㄴ 첨가: 선행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종성이 없고), 후행 음절이 ‘ㄴ, ㅁ’으로 시작할 때 발생.

예) 이+뭉 = 잇뭉[인뭉]

- ㄴㄴ 첨가: 선행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종성이 없고), 후행 음운이 모음 ‘ㅣ’ or 반모음 ‘ㅣ [j]’일 때 발생.

예) 나무+잎 = 나뭇잎[나무닙]

일반적으로, 위의 두 현상은 고유어와 한자어 구성 조건을 만족(후술)하면 사이시옷 표기가 이루어진다.

- 사이시옷?

대전제: 사잇소리 현상(된소리되기, ‘ㄴ’ 첨가, ‘ㄴㄴ’ 첨가),

조건: 순우리말 합성어 or 순우리말+한자어(순서 상관 X. 외래어는 그냥 불가능)

예외: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 사이시옷 표기(암기 X) 나무집[나무집](나무를 파는 집) 등 조건을 만족해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10. 축약

생략하겠다.

11. 형태소

구분	항목
실질·자립 형태소	(명사)어근, 관형사, 부사, 감탄사, 대명사, 수사
실질·의존 형태소	어간
형식·의존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

※ 위에서 언급한 '어근'과 '접사'는 단어 형성 개념 내 의미부에서, '어간'과 '어미'는 용언의 활용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어간은 어근과 접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형태? 동일 의미 형태소, 다른 표기.

1) 음운론적 이형태: 다른 음운 환경에서 다른 형태를 가진 경우.

- 음운 환경의 예시: 모음 조화, 선행 음운의 종성이 자음/모음(=선행 음절의 종성 여부)

2) 형태론적 이형태: 특정 형태소와 어울릴 때 다른 형태를 가진 경우

- 예시 '잡-'+'-다'=잡다, '잡-'+'-서'=잡아서. '먹-'+'-다'=먹다, '먹-'+'-서'=먹어서. '나'+ '는'=나는, '나'+'-가'=내가

12. 단어 형성

어근: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접사: 어근에 붙어 그 뜻을 한정하는 부분.

tip) '~에 붙어'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자립적으로 쓸 수 없다. 조사와 어미가 대표적이다.

단어의 유형(이미 외웠을 듯하니, 넘어갑시다)

단일어: 어근 하나

복합어: 어근 두 개 이상

- 합성어: 어근+어근

- 파생어: 어근+접사(순서 무관)

접미 파생어만 품사를 바꿀 수 있음. 전성 어미나 격조사는 기능만 준다고 생각하면 좋다.

합성어의 분류

분류		정의	예시
어근 배열 방식	통사적	우리말의 일반적 문장 구성 방법을 따르는 합성어	새해(관형사+명사) 진밥(용언의 관형사형+명사) 돌아가다(동사의 연결형+동사) 힘내다(명사+동사)
	비통사적	우리말의 일반적 문장 구성을 따르지 않는 합성어	접칼(동사 어간+명사) 높푸르다(형용사 어간+형용사) 산들바람(부사+명사)
의미 관계	대등	두 어근의 관계가 대등	논밭, 마소, 남녀
	종속	앞의 어근이 뒤의 어근을 수식	손수건, 김밥, 돌다리
	융합	각 어근이 갖지 않는 새로운 의미 생성	쥐꼬리(매우 적은 양) 춘추(나이) 밤낮(항상)

13. 품사론

단어	형태(가 바뀌는지)	(문장 내에서의)기능	(원래)의미
	불변어		체언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관계언	조사		
	독립언	감탄사	
가변어 (서술격 조사도 있다)		용언	동사
			형용사

품사의 분류: 사전에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어야 해당 품사임.

같다: 형용사로 사전에 제시되어 있음.

-> 같게(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형태): 제시되어 있지 않음.

먹다: 동사로 사전에 제시되어 있음.

-> 먹이(접미사가 붙은 형태): 명사로 사전에 제시되어 있음.

※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방법

- 1) 동사는 동작(움직임 또는 작용), 형용사는 상태(다분히 정적).
 - 2) 청유형/명령형 종결 어미 → 동사만 가능
 - 3) 현재형 선어말어미 '-ㄴ-/-는-'(음운론적 이형태 by 선행 음절 종성 여부) → 동사만 가능
예시) 걷는다O, 예쁘다X, 아름답는다X
 - 4)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 → 동사만 가능
예시) 먹는 사람O, 예쁜 사람X
주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은 형용사도 가능하기에, 완벽히 외우지 않으면 현재형과 혼동할 수 있음.
예) 잔 사람O, 예쁜 사람O...
 - 5) 의도·목적의 연결 어미 '-러/려' → 동사만 가능.
다 외울 필요는 없고,
- 움직임 또는 작용인가?
- 현재형 선어말어미 '-ㄴ-/-는-'이 자연스러운가(선어말어미기에, 반드시 뒤에 종결어미가 온다.)?
- 명령형/청유형이 되는가?
- 이 셋만 적용해도 대부분의 용언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다.

14. 체언

문장 내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한다. 조사와 결합하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명사와 대명사는 복수가 가능하다. 표제어의 대부분은 명사다.

보통 명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대상에 붙인 이름. 예) 사과, 참치

고유 명사: 특정 개체를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 예) 전주환, 경기도, 오르비

의존 명사: 홀로 쓰일 수 없고, 앞에 관형어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

※ '만큼, 대로, 뿐'의 품사 구분(조사? 의존명사?)

일반적으로 단어는 띄어 쓰되, 조사는 붙여 쓴다. 그것만 기억하자. 앞이랑 띄어 쓰는거다.

너뿐만 아니라 - 체언에 붙여 썼으니 조사. 조사는 여러 개씩도 붙는다.

뿐만 아니라, - 띄어쓰기가 되었으니 의존명사. 뒤에 보조사가 붙었다.

그것뿐이야. - 이제 구분이 될거다. '대명사+보조사+서술격 조사'의 조합이다.

15. 용언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단어. (활용하여)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며,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겸문장 여부를 확인할 때, 용언의 개수를 파악하면 된다.

예시: 헤어진 애인 잡기는 늘 어렵다. - 헤어지다(동사+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 잡다(동사+명사형 전성 어미 '-기'), 어렵다(형용사). 관형절을 안은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형용사는 성상 형용사(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대부분의 형용사가 해당)와 지시 형용사(앞에 나온 형용사를 다시 가리키는 형용사. 예- 이렇하다, 그러하다)가 있다.

활용 - 어미의 분류

- 선어말어미: '-겠-', '-었-', '-는-' 등.

- 어말 어미

1) 종결 어미(문장 끝맺음) '-다', '-냐', '-자' 등.

2) 연결 어미(일반적으로 이어진문장을 만들.)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본용언과 보조 용언 연결)

3) 전성 어미(일반적으로 안은문장을 만들.)

※전성 어미는 용언에 붙어 다른 품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역할을 함. 실제 품사는 바뀌지 않음.

본용언과 보조 용언

-본용언: 핵심적인 기능을 지닌 용언. 생략할 수 없음.

-보조 용언: 뜻을 보충해 주는 용언으로, 생략할 수 있음. 여기서, '보충해 주는'은 본용언+보조 용언. '보충하는'으로 써도 의미에 지장이 없다.

본+본, 본+보조 구분 방법

1) 본+본은 반드시 띄어 써야 하며, 보조 용언은 붙여 씀도 허용한다.

2) 보조 용언은 생략이 가능하다.

3) 본+보조에는 다른 단어가 끼어들 수 없다.

-(문장 1) 개수대에 라면 국물을 흘려 버렸다. → 흘려버렸다X

-(문장 2) 새로 산 옷에 물을 흘려 버렸다. → 흘려버렸다O

-(문장 3) 나는 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다. → 흘려 버렸다X

문장 1은 '흘리다'와 '버리다' 모두 핵심적인 기능을 가졌기에, 본+본 구성이다.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문장 2는 '흘리다'라는 핵심 기능에 '버리다'가 추가되었기에, 본+보조 구성이다. 생략이 가

능하며, 띄거나 붙일 수 있다.

문장 3은 사전에 '주의 깊게 듣지 아니하고 넘겨 버리다'의 의미로 등재된 단어 '흘러버리다'의 경우이기에, 본용언 하나로만 이루어진 구성이다. 따라서 띄어 쓸 수 없다.

규칙과 불규칙 활용: 생략. 출제된다면, 지문에서 나온다.

16. 수식언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 활용하지 않는다.

- 관형사: 반드시 체언을 수식한다. 체언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

품사를 확인할 때 이를 활용하자.

성상 관형사,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가 있다. 조사가 붙지 않는다.

-부사: (주로)용언,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성상 부사, 지시, 부사, 부정 부사, 문장 부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나, 보조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품사가 헛갈리면 대부분 부사다.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며, 활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식의 대상이 되는 단어를 체언/용언 두 개로 넣어보면 구분할 수 있다.

17. 관계언

조사에 해당한다.

조사는 주로(어지간하면) 체언 뒤에 붙는다.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등이 있다.

격조사의 종류(외우면 편하다)

주격	이, 가, 께서, 에서	체언이 행위나 현상의 주체가 되게 함.
서술격	이다	서술어로 기능하게 함.
목적격	을/를	행위나 동작의 대상이 되게 함.
보격	이/가	'되다', '아니다' 앞에서 서술어의 불완전한 의미를 보충함.
관형격	의	관형어로 기능하게 함.
부사격	에, 에게, 에서, 로 등	부사어로 기능하게 함.
호격	아/야, 여, 이시여	부름의 자리에 놓이게 하여 독립어가 되게 함.

- 보조사: 생략. 외울 필요 없음.

‘-은/는’은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인 이유: 주어 외에 다른 자리에 쓰일 수 있다.

예시) 나는 밥은 먹지 않았다. - 주어와 목적어 모두 가능.

-접속 조사: 두 개 이상의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 ‘-와/과’ 등이 있음. 부사격 조사와 혼동 주의.

예시) ‘나는 너와 내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에서 ‘-와’는 너와 나를 잇는 접속조사지만, ‘나는 너와 만나기 싫어’에서의 ‘-와’는 ‘만나다’를 수식해주는 부사어의 자격을 주는 부사격 조사이다.

18. 독립언

생략

19. 문장 성분

- 주어

정의: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그냥 서술어다.)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

실현: 체언+주격 조사 / 체언+보조사 / 체언 / 명사구, 절

- 서술어

정의: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이 되는 문장 성분

실현: 용언(동사, 형용사) / 체언+서술격 조사(‘-이다’ 등) / 서술절

- 목적어

정의: 서술어가 표현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실현: 체언+목적격 조사(을, 를) / 체언+보조사(은, 는, 도, 만) / 체언+보조사+목적격조사 / 체언

- 보어

정의: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문장의 불완전한 점을 보충하는 문장 성분

실현: 체언+보격조사 / 체언 / 체언+보조사

- 관형어

정의: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실현: 관형사 / 체언+관형격조사 / 체언 / 용언 어간+관형사형 전성어미

매우 중요

-부사 VS. 부사어 / 관형사 VS. 관형어

부사와 관형사는 사전에 등재된 채로, 원래 품사가 부사와 관형사인 단어인 반면, 부사어와 관형어는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 부사와 관형사의 역할과 같은 단어이다.

모든 부사와 관형사는 각각 부사어와 관형어다.

반면, 체언(+조사), 용언 어간+전성어미로 부사어와 관형어가 된 경우의 품사는 원래의 체언 또는 용언이다.

20. 문장 구조

문장의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기준으로 나눈다.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경우 홑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 한다.

- 겹문장

1) 이어진문장

구조: (주어+서술어)+(주어+서술어)

분류: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구분 방법: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 또한 바뀐다.

2) 안은문장

구조: {주어+(주어+서술어)+서술어}. 안긴문장이 안은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함.

분류:

- 명사절을 안은문장

'-(으)ㄴ',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격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긴문장은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등 다양한 성분으로 쓰인다.

- 관형절을 안은문장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으)ㄴ', '-는', '-(으)ㄹ', '-던'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 부사절을 안은문장

서술어, 부사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이', '-게', '-도록', '-아서/어서'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 서술절을 안은문장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마땅한 표지가 없고,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인다.

예시) 꼬끼리는 {코가 길다}. 희영이는 {얼굴이 하얗다}.

- 인용절을 안은문장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뉜다.

직접 인용: 경진이는 나에게 "축제가 언제까지니?"라고 물었다.

간접 인용: 경진이는 나에게 축제가 언제까지냐고 물었다.

21. 종결 표현

평서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 생략.

의문문의 종류

- 설명 의문문: 대답 요구, 요구되는 대답은 '설명'

예시) 비가 언제 올까?

의문사(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사용.

- 판정 의문문: 대답 요구, 요구되는 대답은 '예, 아니요'

예시) 너 밥 먹었니?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음.

- 수사 의문문: 대답 요구 X. 서술, 명령, 감탄의 효과를 낸다.

예시1) 이 영화 정말 재미있지 않니?

예시2) (창문 앞 학생에게)좀 춥지 않니?

22. 높임 표현

1) 상대 높임: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 주로 종결 어미로 실현된다.

보조사 '요'로 실현되기도 한다.

예시) 어디 가십니까? / 어디 가요?

종류: 생략.

2) 주체 높임: 화자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 주격 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실현된다.

- 직접 높임: 화자가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

예시)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다.

- 간접 높임

높일 대상 관련 사물이나 사람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 직접 높임과 달리

특수 어휘(주무시다. 계시다 등)가 쓰이지 않는다.

예시) 할머니께서 약속이 있으시다.

- 3) 객체 높임: 화자가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것. 체언에 부사격조사 '-께'를 붙여 실현하거나, 특수한 어휘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 등을 통해 실현한다.

예1)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으로 갔다.

예2) 영희는 그 문제를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다.

23. 시간 표현

화자가 전달하는 사건이 '말하는 시점(발화시)'을 기준으로 '언제 이루어졌는지(사건시)'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뉜다.

- 1) 과거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것. 대상이 예전 일이다.

예1) 나는 동아리방에서 영수를 보았다.

예2) 그가 입은 바지가 참 멋졌다.

- 2) 현재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 대상이 지금의 일이다.

보편적인 사실과 확실히 일어날 사실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 나는 내일 제주도에 간다.

예!) 나는 오솔길을 걷는다.

예2) 뛰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

- 3) 미래 시제: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인 시제. 대상이 미래의 일이다.

예1) 내일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2) 모래 우리는 국어 탐구 대회를 할 것이다.

- 동작상

발화시를 기준으로,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인지(진행상)', '완료 되었는지(완료상)'를 나타낸다.

- 진행상

예시) 동생은 학교에 가고 있다.

- 완료상

예시) 나팔꽃이 피어 있다.

24. 피동 & 사동 표현

- 피동 표현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 = 능동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 = 피동

예시)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 실현 방법

- 1) 파생적 피동문(단형 피동)

- 동사의 어근 +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 예시) 뽑다 → 뽑히다
- 명사 + 피동 접미사 '-되다'
- 예시) 발견 → 발견되다

2) 통사적 피동문(장형 피동)

- 용언의 어간 + '-아/어지다' '-게 되다'
- 예시) 베다 → 베어지다 / 읽다 → 읽게 되다

※ 이중 피동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을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비문이다.

예시) '나누-'+'-이-'+'-어지다'=나뉘어지다. 나누어지다 또는 나뉘다로 바꾸어야 함.

사동 + 피동인 경우, 이중 피동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목적어가 있다. 목적어의 유무로 이중 피동 유무를 파악하도록 하자.

예시) 소식을 알리다. - 목적어가 있으므로 사동 표현.
소식을 알리게 되다 → 따라서 오류가 아니다.

능동문 → 피동문 바꾸기

능동문의 목적어 → 피동문의 주어

능동문의 주어 → 피동문의 부사어

능동사 → 피동사

- 사동 표현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 주동

주어가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 사동

- 실현 방법

1) 파생적 사동문(단형): 동사의 어근 +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예시) 울다 → 울리다

2) 통사적 사동문(장형): 용언의 어간 + '-게 하다'

예시) 울다 → 울게 하다

- 주동문 → 사동문

1) 서술어가 자동사 or 형용사일 경우

얼음이 녹는다 → OO가 얼음을 녹인다

- 새로운 주어가 도입됨

- 주동문의 주어 → 사동문의 목적어

- 주동사 → 사동사

2) 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

그가 편지를 읽었다 → X가 그에게 편지를 읽혔다

- 새로운 주어가 도입됨
- 주동문의 주어 → 사동문의 부사어
- 주동사 → 사동사

25. 부정 표현

긍정 표현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을 써서 내용 일부 혹은 전체를 부정하는 것.

1) 짧은 부정문

'부사'인 '안', '못'을 사용해 실현

2) 긴 부정문

용언인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를 사용해 실현

3) 서술어 제약

서술어가 '체언 + -하다'인 경우 '체언+부정부사+하다'의 형태가 된다.

예시) 공부했다 → 공부 안 했다.(O) / 안 공부했다.(X)

일반적으로 파생어, 합성어, 음절이 긴 서술어는 긴 부정문이 어울린다.

예1) 스승답지 않다.(O) / 안 스승답다.(X)

예2) 하늘이 어두침침하지 않다.(O) / 하늘이 안 어두침침하다.(X)

-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1) 안 부정문

부정 부사 '안'과 부정 용언 '-지 아니하다' → 단순 부정과 의지 부정을 나타냄.

예1) 새싹이 안 돋았다.(단순 부정) - 단순히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

예2) 친구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의지 부정) - 주체의 의지로 하지 않음을 나타냄

2) 못 부정문

부정 부사 '못'과 부정 용언 '-지 못하다' → 능력 부정과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에 의한 부정

예1)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었다.(능력 부정) - 주체의 능력상 불가능함을 나타냄

예2) 수평 평가 과제가 너무 많아서 영화를 보러 가지 못했다.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에 의한 부정) - 외부의 상황이나 원인 때문에 불가능함을 나타냄

3) 제약

안 부정문은 주체의 의지나 의도가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예시) 안 깨달았다.(X) 깨달지 못했다.(O)

못 부정문은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원칙적으로 쓰지 못하나,
 '기대에 못 미침'을 나타낼 때에는 긴 부정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예시) 부드럽지 못하다.(O) 못 부드럽다.(X)

3) 말다 부정문: 금지의 의미,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부정 표현에 사용
 동사의 어간 + '-지 말다'의 형태로 실현

예시) 그렇게 떠들'지 마라'. 우리 떠들'지 말자'

※ 말다: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쓸 수 없으나, 기원의 의미일 때는 사용 가능.

예시) 예쁘지 마라(X) / 춤지만 마라(O)

25. 국어의 역사 - 고대 / 중세 / 근대 국어

1) 중세 국어의 특징

- 동국정운식 한자 표기(중국의 한자 원음과 비슷하게 표기)
- 현대 국어에 없는 음운
 ㅁ, ㅂ, ㅅ 등
- 의미 변경, 소멸한 단어
 어린(어리석은→나이가 적은), 전초(소멸) 등의 의미 이동이 있었음.
- 어두 자음군
 음절 첫소리에 ㅂ ㅅ ㅈ 등과 같이 자음이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함 - 대부분 된소리.
- 모음 조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려는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짐.
- 음운 변동
 구개음화, 원순 모음화,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음.
- 방점 표기, 이어적기: 생략
- 주격 조사
 '이' 하나만 쓰였으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실현됨.
 '-이': 선행 음절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 주로 연음되어 나타남.
- 높임 표현
 선어말 어미에 의한 높임 표현이 나타남
 주체: '-(으)', '-시-', '-샤-'
 객체: 습 / 즈 / 습 / 습 / 즐 / 즐 / 습
 상대: '-이-', '-잇-'

- 의문문

종결 어미에 의해 실현됨.

1, 3인칭은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어미가 다름. 2인칭 주어가 쓰인 의문문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ㄴ다'를 사용함

설명 의문문

구체적 대답 요구 / 'ㄴ' 계열의 어미 쓰임

판정 의문문

예/아니요 대답 요구 / '-ㅏ/ㅑ' 계열의 어미 쓰임

결론.

최근의 기조는 언어 개념서 내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한 후,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주어진 조건을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자.